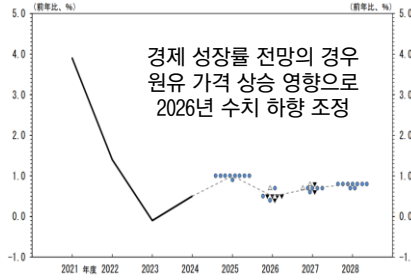
Today Chart Bond

2026.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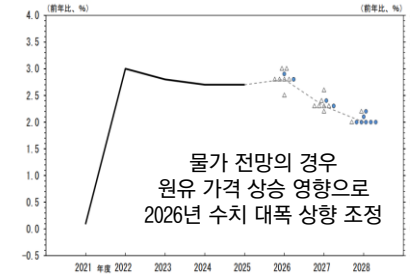
채권 우혜영
whydele@ls-sec.co.kr

2026년 4월 BOJ Review:6월 금정위에서 인상 가능성 열어놨다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구분	2025년				구분	2026년				구분	2027년				구분	2028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	물가
	'26.1	'26.4	'26.1	'26.4		'26.1	'26.4	'26.1	'26.4		'26.1	'26.4	'26.1	'26.4		'26.4	'26.4
△	1	-	2	-	△	2	1	3	7	△	-	2	3	7	△	-	2
●	8	9	6	-	●	6	3	4	2	●	9	5	4	2	●	9	7
▼	-	-	1	-	▼	1	5	2	-	▼	-	2	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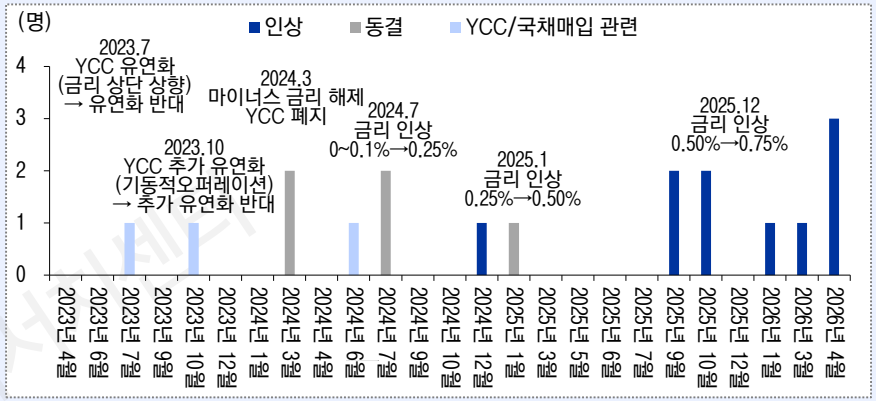
구분	실질 GDP 성장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6년 1월	+0.8 ~ +0.9 (0.9)	+0.8 ~ +1.0(1.0)	+0.8 ~ +1.0(0.8)	-
2026년 4월	+1.0 ~ +1.0 (1.0)	+0.4 ~ +0.7(0.5)	+0.6 ~ +0.8(0.7)	+0.7 ~ +0.8(0.8)

구분	물가상승률(%)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6년 1월	+2.7 ~ +2.8(2.7)	+1.9 ~ +2.0(1.9)	+1.9 ~ +2.2(2.0)	-
2026년 4월	2.7	+2.8 ~ +3.0(2.8)	+2.3 ~ +2.4(2.3)	+2.0 ~ +2.2(2.0)

2026년의 경우 경제 전망은 하방 위험, 물가 전망은 상방 위험이 더 큼. 동시에 위험이 높아질 수 있지만, 기조적인 물가가 2%에 근접하는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임금·가격 설정 등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이 더 크게 상승하는 위험이 현실화 돼 경제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필요

자료: 日本銀行, LS증권 리서치센터

우에다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 체제에서 가장 많은 소수의견



Key Point

- ●무담보 콜금리(O/N) 0.75% 정도에서 운영 결정(찬성 6명, 반대 3명)
  - 타카타 하지메: 물가 안정 목표가 대체로 달성 + 해외發 물가 상승의 2차 파급 효과로 인해 일본 국내 물가의 상방 위험이 이미 높아졌기에 인상 필요
  - 나카가와 준코: 중동 지정학 리스크 불확실성 존재하나 경제 상황 고려 시 완화적인 금융 환경 하에서 물가의 상방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인상 필요
  - 타무라 나오키: 물가 상방 위험 크게 확대돼 중립금리 근접 위한 인상 필요
- ●「TGIF vol.178」에서 BOJ가 6월 인상 고려한다면 1)최소 2명 이상의 소수의견, 2)성장 전망 유지 or 상향과 물가 전망 상향 조정 필요 언급
  - 올해 전망 수치 소폭 하향되었지만 잠재 수준에 부합 + 물가 전망치 약 1%p 상향 + 물가 상방 리스크에 유의 필요하다는 판단 고려 시 인상 가능성 높음
- ● 이날 소수의견 제시한 나카가와 준코 위원 임기가 6월 29일까지인 점도 6월 금정위(6월 15~16일) 인상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우혜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LS증권